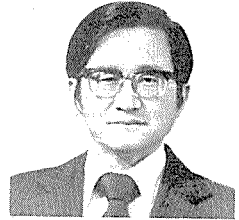


第3의 물결과 文明的 向方



金 貞 欽
(高麗大教授·物理學)

第3의 물결

알빈 토플러가 말한바와 같이 지금 家庭에서 事務室에서, 學校內에서, 길거리에서 人類가 일찍 겪어보지도 못했던 커다란 變革이 소리로 없이 進行되고 있다. 토플러는 이 變革은 第三의 물결이라 表現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年前부터 일기 시작한 第2의 물결인 産業革命, 약 1萬年前부터 시작한 第1의 물결인 農耕革命의 그 어느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強力하고 廣範圍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變化는 家庭에 들어와서는 核家族을 內部的으로 崩壞시키고 있고, 事務室에서는 幹部社員의 權威의 失墜와 位階 秩序의 崩壞에 連結되고, 思想界에서는 新興學者의 隆盛을, 生産界에서는 單一種 大量生産의 樣式에서 多種品 少量生産으로의 變化를 일으켜 가고 있다. 또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分權化와 多種化가 일어나고 事物에 처한 多價値觀을 先導하기도 한다.

譯者는 이 變化를 電子革命의 時代 또는 電子工學의 時代(Electronic Era)라 부르고, 어떤 이는 이것을 宇宙時代(Space Age)라고도 부른다. 다니엘 벨은 다가올 이런 社會를 脫産業化社會(또는 後期産業化社會, Post Industrial Society), 카터 前美國大統領의 補佐官 이었던 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이 變化를 技術과 電子工學이 一體가 된 時代라 해서 테크네트로닉스(機電一體, Technetronics)의 時代, 캐나다의 文

化史學者였던 마셜 맥루한은 通信의 發達로 地球上의 모든 人間이 한 村落에 사는 것과 같은 時代가 된다해서 地球村(Global Village)의 時代라 부르고 있다. 또 蘇聯의 어떤 科學者는 이것을 科學技術革命(Scientific Technological Revolution)이라 부르고 알빈 토플러 自身은 이것을 超産業社會(Super Industrial Society)라 부르고 있다. 또 日本의 어떤 學者는 多價値觀 多選擇의 時代라 해서 多 채널時代(Multi-channel Society)라 부르기도 한다.

그 名稱이야 어떻든 이 모든 것이 實은 電子工學의 非常한 發達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것만은 確實하다.

사실 컴퓨터와 通信技術의 非常한 發達로 人類는 이제 地球의 反對쪽에 있는 사람과도 다 이말 하나로 「여보게 여기는 서울인데 뉴욕의 날씨는 지금 어떤가?」하고 물어볼 수 조차 있게 되었다. 집뜰에 나가 「여보게 李서방」하고 물으면 「왜그래 金서방」하고 대답하는 한 村落에 사는 사람들 모양 이제 通信技術의 發達로 地球는 하나의 조그마한 村落의 크기로 變해가고 있다. 케네드 E. 보울딩의 表現과 같이 「宇宙船 地球号」의 승객들이 겪은 이 變化, 「第3의 물결」은 과연 어떤 變化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가?

時差制 通勤制가 가져다준 變化

이 變化는 先進國家인 美國이나 유럽이나 日

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우리 韓國, 그리고 우리나라 家庭에서도 소리도 없이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한 例를 들자.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大都市의 出退勤 交通은 말이 아니다. 一時에 모여든 通勤者들로 아침 交通은 地獄 그대로의 狀態이다. 그래서 大都市, 例컨데 서울特別市の 時差制를 採択하게 되었다. 出勤時間에 2時間의 幅을 주어 通勤地獄을 緩和시키자는 것이다. 例컨데 高等學校는 8時에, 中學校는 8時半에, 國民校는 9時에, 銀行은 9時半에, 一般會社는 10時에 시작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 時差制는 큰 成功을 거두었다. 그래서 大都市의 交通擔當者는 會心の 微笑를 띠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채 사라지기도 前에 새로운 問題가 야기된다. 核家族의 崩壞를 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한 具體的인 例를 들어보자. A家族의 構成要員은 아버지, 어머니, 銀行다니는 딸, 高校다니는 長男, 中學校다니는 二女, 國校다니는 막내인 次男으로 되어 있다 하자.

아침 7時20분이되면 高校生인 長男이 일찍으로 일어나 「밥」하고 아침밥을 달란다. 食事が 끝나 설거지를 하려 할 7時50분쯤 되면 이번에는 中學校다니는 二女가 「밥」하고 또 아침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每30分마다 國校다니는 次男 銀行 다니는 딸, 그리고 마지막으로 會社로 나가는 아버지가 차례 차례로 밥을 달란다. 이런 일은 每日같이 계속된다. 家庭의 平和를 위해 참고 참던 어머니에게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도대체 어머니란 무엇인가? 밥시중을 드는 下女인가? 그렇다고 家政婦를 구하기도 힘든 時代이다. 「컬러TV가 있느냐? 電話가 있느냐?」 등등 마치 試驗監督官이나 되듯 물어보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다 해도 家族이 넷以上이 되면 벌써 있으려 하지도 않는 家政婦들 그렇다고 가난한 살림에 터무니 없는 高額의 月給을 줄 수도 없다. 그래서 家政婦없이 혼자 참고 참아왔지만 말이다.

核家族의 内部崩壞 — 電氣밥솥이 일으킨 革命

그래서 어느날 어머니는 드디어 「人間宣言」을 한다. 「어머니도 사람이다. 따라서 來日부터는 아침밥은 各者 떠먹기」라고 宣言을 한다.

多幸히 電氣밥솥이란 武器가 있었다. 24時間 내내 뜨끈뜨끈한 밥을 담아두는 電子밥통도 있다. 어머니가 싫껏 아침 잠을 자는 사이에 아들 딸들은 제각기 保温밥통에서 밥을 떠먹고, 冷藏庫라는 現代武器가 냉장해 둔 각뚜기며 김치며 멸치통조림을 끄집어내서 먹는다. 간혹은 계란 프라이도 손쉽게 해 먹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주름살과 신경쇠약도 꺼져 없어진다. 一家에는 다시 平和가 되 돌아온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그 平和의 뒤쪽에는 무서운 덩어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家族이란 무엇인가 말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家族이란 본래가 「세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의 集團」인 것이다. 血緣關係로 家族을 定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손쉽게 말해서 家族이란 세끼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家族間의 紐帶가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紐帶는 끊어져가고 있다. 세끼밥중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안먹게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라틴民族과는 달리 會社가 學校나 官公署 등 어디서나 점심시간이 30分 내지 1時間밖에 안되는 韓國에서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도시락 文化」가 이미 確立되어 있다. 그래서 세끼밥 중 점심은 한家族이 같이 먹지 않게 된지는 벌써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 이제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時差通勤制가 채택되고, 그것에 맞추노라고 電氣밥솥과 保温밥통 또는 藏冷庫나 電子레인지라는 電子製品이 發達했고, 그 결과 家族은 제각기 아침을 먹게 되었다. 原因과 結果가 바뀌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原因과 結果가 서로 바뀌는 사이에 이와 같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세끼밥 중 두끼를 같이 안 먹을 때 家庭은 어떻게 되는가? 時差通勤制 採擇初期에는 아무

런 변화도 없어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데 따라 家族間의 會話는 점점 줄어들고, 家族의 紐帶關係도 점점 弱화가 된다. 보이지도 않는 運命의 실같은 것에 끌리어 한 家族은 이렇게 해서 서서히 内部崩壞를 이르켜 가는 것이다.

더구나 韓國의 아버지는 단 하나 남은 저녁밥마저도 같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課長이 되고 部長이 된 아버지는 家族의 한 멤버라기 보다 會社의 所屬物이 된다. 그래서 밤늦게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돌아왔을때 아들딸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간 후가 된다.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들 딸들은 모두 學校에 간 뒤가 된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日曜日에도 아버지가 늦게 까지 아침잠을 자는 사이에 애들은 敎會로, 郊外로 뿔뿔이 흩어져 떠나가 버린다.

그래서 어느날 어쩌다, 정말 어쩌다 우연히 오래간만에 高校다니는 長男이 아버지와 劇的인 相逢을 하게 된다. 알고 보니 2달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아버지는 便所안에 들어가서 담배냄새를 맡게 된다. 高校生 아들의 吸煙! 충격을 받은 아버지의 즉각적인 說教! 그러나 아들은 反抗心에 가득차 있다. 첫번째 說教때는 그래도 순순히 말을 듣는다.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 說教때가 되면 아들의 反抗心은 爆發點에까지 도달한다. 「도대체 아버지는 나를 언제 만나 보았다고 만날 때마다 說教야!」 말이다.

그래서 아들은 家出하게 되고, 깜짝 놀란 父母는 新聞에 廣告를 낸다.

「哲秀야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잘못했다. 빨리 돌아오라」라고 말이다.

脱工業化 文明이 나갈 길

물론 이것은 픽션이다. 그러나 이 픽션이 現實性있게 들리는 것은 웬일일까? 電子化의 물결은 뜻하지 않게도 이와 같은 變化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물론 電子工學의 發展, 科學技

術의 發展이 그 원흉은 아니다. 重要한 것은 그 科學技術의 產物을 이러한 꼴로 이끌게 한 制度나 사람들 自身의 生活哲學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간다」라는 登山家모양, 電氣밥솥과 保溫밥통이 있는 限 그것은 안쓸 理由는 없다. 그 電氣밥솥이 있는 그 代價로 家族 한사람 한사람이 제각기의 아침밥을 먹는다고해서 나쁠 理由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技術의 이와 같은 普及을 본 大都市當局者가 時差 通勤制를 채택해서 交通地獄을 緩和시킨 施策은 칭찬은 받을지언정 非難을 받을 아무런 理由도 없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이 모든 合理化 過程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家族間의 紐帶」라는 그 좋은 옛風習, 美風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文明社會가 가져온 이 異變, 그러나 그 異變은 人類歷史의 어느 断面에서도 있기는 있었다. 4000年前에 세워졌다는 피라미드의 内部壁에도 이런 落書가 있었다.

「요새 젊은 녀석들의 꼴을 보면……」 즉 世代差나 世代間의 斷切은 어느 시대에도 있기는 있었다.

工業化 過程의 急激한 導入에 급급했던 나머지 우리는 工業化 過程이 만들어내는 副作用의 效果를 無視했거나 잊어버린듯 하다. 너무도 急激한 變化속에 우리들의 美俗良風이 하나 하나 허물어져가고 退色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急激한 工業化 過程, 電子化 過程속에서도 우리의 나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精神文化發展面에 더 한층의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努力이 서서히나마 시작되어 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다.

第3의 물결에 올라타면서도 文明의 向方을 잘살피면서 올바른 길을 開拓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急速한 工業化社會를 이룩한 現在의 韓國이 開拓해 나가야 할 가장 重要한 길인 것이다.